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 1열왕 19, 9a. 11-13a

제2독서 : 로마 9, 1-5

복음 : 마태 14, 22-33

# 순정이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마태 14, 27)



##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완재 신부 / 봉동 천주교회

말복이다.

첫 봉동의 여름은 우거진 잡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성대는 파리, 모기. 더위를 한층 더 느끼게 하는 조립식 성전, 가끔씩 그 안의 하느님도 폭염에 죽을 지경일 것이다.

풍랑이 없고, 파도가 없는 그런 잔잔하고 편안한 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 모두 그런 마음일 것이라 굳게 믿는다.

주님, 당신의 성전을 이 세상에 세우다 보면 풍랑도 있고, 베드로처럼 때로 많은 경우에는 의심과 회의의를 품고 스스로 짜증나는 세상으로만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모습은 어찌 우리 공동체의 모습뿐이겠습니까? 더위만큼 오른 물가에 한숨 쉬는 서민의 얼굴에서 풍랑을 만난 베드로를 볼수 있고, 정치 현실만큼 뒤틀리고 병들어 있는 사회의 윤리 안에서, 살아서 숨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서 의심과 회의 속에 좌절하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

희망이 절박인 경제, 무엇하나 짜증안나는 것이 없고 무엇하나 매듭이 풀려 있는 일이 없는 듯한 현실은 기업인 노동자의 가슴에 풍랑을 만난 오늘 복음의 베드로의 모습이다. 어찌 이뿐이라 자신이 차가운지 더운지 분간을 못하고 천방지축 뛰어대는 신앙, 시계추의 모습과 다를바 없는 우리는 바로 오늘 복음의 베드로이다. 이처럼 풍랑을 만나 회의와 의심 속에서 지치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고통을 느끼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저기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걸어오시며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하시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의 물 위를 걸으신 예수의 기적은 온갖 죽음, 무서움, 공포를 제거시키고 이기셨다는 하느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인간구원의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다. 그러기에 모진 세파의 풍랑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세파에 시달려 믿음도 포기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주님 당신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를 구해 주십사 온전히 간청하며 기도해야 한다.

# 낮설고 먼 해방

정인섭(안드레아)

## 1. 소년가장 이야기

우리반에 소년가장이 한 명 있다. 물론 반 년쯤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소년'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긴 마찬가지이다. 그에게는 중학생 남동생이 하나 딸렸다.

두 해 전 그가 갓 입학했을 때 우연히 그 처지를 알게 된 나는 참고서를 한 권 줄까 하고 불렀더니, "제게 특별하게 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고 사양하는 것이었다. 그의 태도에 놀란 나는 그후 줄곧 마음을 쓰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모른 채로 지내왔다.

그러다가 올해 내가 그의 학급담임을 맡게 되자 차근차근 대화도 시작하고 어색하지 않게 도움도 줄만하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점심을 그와 동생을 불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평소처럼 그는 도무지 말을 얹고 동생은 형보다는 나았으나 형 눈치를 보는 것이어서 분위기는 뜻대로 잡히지가 않았다. 더구나 좀 특별한 것을 먹이겠다고 양식(비프 스테이크)을 시켰더니 평소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지 입에 안 맞는지 맛있게 먹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셋씩이나 싸고(동생것, 자기것 둘), 동생 비뚤어지지 않도록 자주 타이르고, 피롭고 힘든 날에는 혼자 조용한 곳에 가 앉아서 울거나 풀잎을 뜯거나 하고, 졸업 후 대학 가서 살아갈 일을 걱정하고 그렇게 지내는 '고3 입시생 소년가장'이다.

## 2. 형제애의 이상과 현실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으로서-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흔하지만, 사실 짐승은 죄나 악의 관념을 애초에 모르는 존재이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은 잘 못된 것이지만-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단정적인 말투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따른다는 우리는 신앙을 장식, 취미 그 이상의 참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우리는 신앙인

이라는 자기 살핌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3. 해방을 무엇에 쓸까

팔월 보름은 민족해방절이자 성모님의 승천대축일인데, 이 두 뜻이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으로 새롭게 되살아나야 할까?

삶은 늘 단순하고 소박한 것,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도 그래야 하리라. 소박한 것을 팔시하는 거만함을 꺾어서 내다버리기로 하자, 단순함을 우습게 아는 거짓 인생관을 훌훌 털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남는 것, 내 오롯한 나머지 비어있는 그것을 그릇으로 삼고 깨끗하게 씻을 일이다.

이 그릇엔 무엇을 담을까?

이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제 그릇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려는 사람이니까. 없음은 곧 있음의 다른 표현이요, 비어있음은 가득함의 또 다른 뜻이다.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못보다가 무엇이 보일 때, 눈부심은 얼마간 아픔일 수 있다. 가진 바를 털어낼 때도 그런 아픔이 느껴지겠지만 그 아픔을 어찌 해방감에 비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해방'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

## 순정이 신책



예수님 시원하시죠?

주님이 계시기에 >

## 모든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고

생사가 잇갈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한 삶은 존경스럽다. 이는 하느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삶이기 때문이다. 많지 않은 이런 삶은 현실에 부딪히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마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런 삶을 찾아 원준혁(베네딕도, 78세), 김필애(루시아, 77세)부부를 만나뵈었다. 중앙 성당 애령회장부부로 잘 알려진 이분들은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신 '실향민'이시다.

해방을 전후한 북녘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해방 전에 평양에서 살았는데 일제치하에선 신앙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고 대동고무공장에서 일하는데 천주교 신자라고 심하게 감시하고 차별하대요, 그러더니 보일러가 터지자 그 책임을 씌워 파면하고, 그후 양말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숙직한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했다고 상부에 보고하여 강제로 쫓겨났어요, 그래도 기도와 전례 거행은 산속에 숨어서 빠짐없이 했지요.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지요?

전쟁 전부터 평양교구 총무로 일했는데 1.4후퇴 때 신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다가 피난이 늦어졌어요, 남들 다 떠나고 난 뒤 간신히 평양을 떠나 황해도에 도착해서 피난선을 탔는데 배가 남해도중 충돌을 일으켜서 군산에 정박하여 부둣가에 움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때 돈을동 본당신부님께 군산난민회장으로 임명받아 활동했지요. 그후 김계 백구 난민촌으로 이주해서 13명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 신부님의 까다로운 참고를 통과시켰지요. 그때부터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공소 짓고 전교하고, 그러니 당연히 가난했지요.

(이때 조용히 듣고 계시던 루시아 할머니께서 말을 이으셨다) “그때 너무나 가난해서 평택 남민촌으로 가서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못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교하라고. 그때에는 신부님 말씀에 순명 안하면 신자생활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역할 생각은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 영영 울기만 했지요.



그러면 의식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고 아무 걱정 않고 어디를 가던 성당 일만 했어요. 신부님 뜻을 따라 백구에서 용지공소로, 다시 만경공소로 옮겼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고비(월2만원)를 주신다기에 그것을 모아 논(1필지)을 사달라고 부탁드려 쌀을 경작했지요, 그것이 다예요.

슬하에 자녀가 없다고 들었는데 외롭지는 않으세요?

늙고 병드니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던 시동생이 셋이나 있어서 우리 아이가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까봐 아이가 없도록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친자식은 없지만 대자대녀들이 많습니다.(넉넉한 웃음을 지으시며 베네딕도회장님께서 말을 받으셨다.) 진짜 자식 농사는 잘지었지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될텐데요. 통일되면 고향에 가서서 또 전교하셔야지요?

“이젠 기대할 수 없지요. 우리 자식들이나 해야지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는 하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다 알아서 하실거예요.”

웬지 모를 씩씩함이 배어나왔다. 고향 땅을 다시 밟을 희망조차 잃게 만든 분단조국의 현실이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무거움 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믿고 따라 나선 삶, 그 삶에 배려된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사람의 눈으로는 쉬이 헤아릴 수 없는…….

취재 : 최원석(시문)

특집

# 북한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아침에 눈을 뜨고서야 어젯밤 일기예보가 범상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갈수록 태산인가. 빨리 사무실에 나가야 하는데, 비 그칠 생각은 아예 없고, 아랫녘에 위치한 전철역 앞은 물바다였다. 그 넓은 역광장에 군부대와 파출소 인력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린다.

하룻밤 장마에 이정도라면, 북한동포들의 수해에 인한 고초가 얼마나 클 것인지 새삼 다시 걱정이 앞선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수해로 인해 파괴된 기간시설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식량 배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 즐비하다는데. 북한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지척에서 북한동포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에 아예 찾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금단의 땅이라 생각하니 '지척이 천리'란 말도 옛말은 아닐터이다. 그래서 신문잡지에 접하는 북한소식이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오늘 아침 '물난리'를 겪음으로써, 내가 그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면 이도 또한 축복 아닌가. '불꽃의 여자'라고 불리는 시몬느 베이유는 어린시절 오빠와 함께 크리미아 전쟁으로 시달리는 병사들을 생각하며 설탕 먹기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타인의 "슬픔과 번뇌, 기쁨과 희망"을 나의 것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구원이란 바로 '나 중심'에서 '너 중심' '우리 중심'으로 건너가는 뻘스카의 신비 속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가 곧 자신과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실상 자신과 타인을 모두 구원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성사(聖事)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백성들도 그 본을 따라 갈라진 백성을 하나로 묶고, 분단된 땅을 통일시키는 데 사심없이 투신 할 수 있으며, "한반도는 분열의 세계의 상징"(요한 바오로 2세)에서 "진정한 일치의 상징"이 될 수 있



'89년 북한을 방문한 문규현 신부와 그곳 아낙들

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정부당국은 '92년 2월 16일 통일의 대장전이라고 불려야 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남북당국은 실제로 이 기본합의서를 백지화 시켜왔다. 이는 각 정권담당자들에게 분담상황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통일운동 세력이나 민주화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의 입과 발목을 틀어 잡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서건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판단되고, 시행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성사'가 되기 위해 그 사명을 더욱 크게 자각하여야 한다. 한국천주교회는 '84년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주교회의 산

## 선경 컴퓨터 티운

삼성,삼보 및 국내외 모든 컴퓨터 총판

이 병 균(프란치스코) 정 미 선(글 라 라)

평화주공 1단지 입구

☎(代)231-2237

## 기아·아시아 딜러 영업소

송 수 환(다니엘) 이 영 자(아네스)

시트카바,선명,적제할보강동 10여가지 선물, 신자분보유 중고차감정 및 이권,검사,폐차대행

☎(0652)225-0045

(전화문의 환영)

##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라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254-2631

##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중로타리 동서중권 맞은편

☎ 252-0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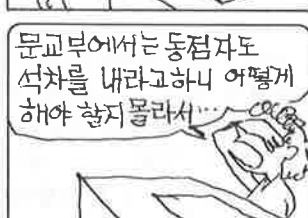
# 공감적 삶과 실천

한상봉(이시도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국장

하에 북한선교위원회를 구성하고, 뒤 이어 통일사목연구소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통일염원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서울교구의 경우에는 교구 안에 '민족복음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자수도장상연합회 안에도 분단문제를 해결하려는 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89년 문규현 신부 파북 사건'을 중요한 계기로 분단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시대의 정표를 읽으려는 교회가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대 이 백성의 삶과 분리된 복음선교가 어디 있으며, 겨레없이 교회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그러나 한편에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는 교회 안에 끈덕지게 자리잡고 있는 정복적이고 호교론적 태도이다. 그 동안 교회 안에서 민족화해학교 등을 개설하여 통일일꾼을 양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북한동포를 단지 불의한 정권아래서 신음하는 불쌍한 동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심스럽다. 주의정권은 타도의 대상이고, 동포는 구출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민족통일은 묘연하다. 남한과 북한 그 어느편도 절대선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남한사회 안에서 자본주의적인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침식되어 있는 점이 없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선교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교회 안의 북한선교, 통일사목에 대한 관심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여, 곧 북한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북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남한교회의 방식대로 천주교 신앙을 뿌리내릴 방법에 골몰하는 태도는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교계인론에 따르면, 현재 교회는 북한에 파송할 성직자 양성, 성전 건립기금 마련, 북한에 대해 죽임 당한 순교자 연구에 열심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교회의 관심이 북한과 남한 사회가 통합하여 복음적 질서, 화해와 평등,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교회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데 모아지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이러한 태도가 위험한 것은 통일을 위한 교회 중심주의,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민족 전체의 공동선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한말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교회 중심주의가 고위성직자들로 하여금 결국 '민족보다 교회유지'를 선택하게 강요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였던 과거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선 남북한 사회를 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복음적 잣대로 식별하고, 민족 공동선에 맞닿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의연하고 지속적으로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요심이 (1198) 김병오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야곱의 우물(월간지)**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가격: 1,000원 ·1년구독: 10,000원  
·연락처: 성바오로 서원(☎252-3398)

**한국 외방 선교회 성소 피정**  
·일시: 8월17일~18일 오후4시  
·장소: 한국의방선교회 신학원 (수원가톨릭대학 옆)  
·문의: 02)3673-2525  
0331)292-8490~1  
·접수: 8월15일까지

**아이사랑 어린이집**  
모집연령: 24개월~취학전  
교육내용: 활동중심+영어제=통합교육  
개원일: 8월17일  
신 미(헬레나)  
팔복동 반룡리  
☎ 254-2862, 212-8873

**공인회계사 강기문사무소**  
“교우 세무상담 무료”  
강기문(마태오)  
박소진(수산나)  
경원동 파출소 앞. 소서빌딩3층  
☎ 87-7007  
FAX. 87-7009

개업  
**씨에 프랑스(주)**  
유럽 및 세계 전문 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여행 상담을 환영합니다)  
조종자(베로니카)  
덕진광장 앞 서울의원 2층  
☎ 72-3335 FAX 72-3065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사목단상

# 함께 삶을 나누며



백순희(리오바) 수녀 / 작은자매전교회, 동혜원

새벽 5시30분 아침기도로 하루가 시작 된다. 동혜원은 33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신자들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기에 마치 초대 교회 공동체를 연상하게 한다. 이들과 삶을 나누는 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진한 사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나환우라는 아픔을 지닌 형제들이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분들이다.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다. 자신들의 몸도 불편하면서도 이웃 집 형제가 아파 누워 있으면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먼저 이웃 형제를 찾아가 보살핀다. 이들의 사랑실천의 모습은 나의 수도생활에 귀감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성서나누기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희 남편이 나병에 걸려 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제 남편이 나병에 걸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성체조배 시간도 가질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정작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것 저것 따지고 재면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들의 삶은 내가 수도생활을 잘 살아가길 수 있도록 자극과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 이들도 또한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해 본다. 새벽 5시30분에 아침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 12시 삼종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따라 하던 일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루일과는 오후 7시30분 저녁기도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24시간 성체조배시간을 갖는다. 모두 열심이다. 100% 참석율은 아

니지만 텔레비전의 재미있는 연속극도 제쳐 놓고 성당으로 달려오는 이들은 신앙생활이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다.

우리 수도자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준다고 보다 그냥 함께 삶을 나누고 있다. 기도하고 교리 가르치고,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손발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은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분들이 더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뻗속 깊이 세기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오늘날 예언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요즘 특히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현세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짐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아픔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있는 그들의 삶은 소중하기만 하다. 그러기에 나는 이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 이곳이 천국이라고 느끼는 자매님처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나를 이곳에 파견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느님 보시기 좋더라’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본다.

###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 한양 내과의원

(구) 박애의원  
자동차 적성검사  
부설 : 물리치료  
김석주(토마스)  
☎ (0658)45-3769

### 여성 종합 조경

조경공사 · 설계 · 정원공사  
각종 판상수 상담  
송용의(리우렌시오)  
장공순(디오디시아)  
☎ (0652) 253-5330~1  
휴대폰 011-652-1333

### 한양 카센터

차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주·야 차량대기>  
박수성(바오로)  
탁제희(소피아)  
송천동 한양아파트 입구  
☎ 76-9039

# 교 구 소 식

❖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때 : 8월15일(목)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교구장 성모승천 미사

- 때 : 8월15일(목) 오전10시
- 장소 : 함열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교구설정 60주년 준비위원회

- 때 : 8월13일(화) 오전10시
- 장소 : 교구청

❖ 가톨릭사건가회 정기촬영

- 때 : 8월18일(일) 오전7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사회복지 월레미사

- 때 : 8월12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레미사(군산)

- 때 : 8월12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나운동 성당

❖ M·E 61차 주말

- 때 : 8월16일~18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사제 아버지회

- 때 : 8월15일(목) 오전11시
- 장소 : 전동 성당 충연관

❖ M.B.W 수련회 (우리시대의 영성)

- 때 : 8월12일~14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회비 : 50,000원
- 신청 : 사목국 홍보과 ☎ 85-0041

❖ 성직자 묘지 미사

- 때 : 8월12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 송년흥 신부 주소

Justinusheim  
Jurastraße 3  
CH-1700 Freiburg  
SWITZERLAND  
☎ 001-41-37-26-67-99



■ 권해드립니다 ■

· 은총이 가득하신  
조르제트 블라키에르 외 / 조안나  
바오로딸 / 4,000원

인류 구원의 시발점이 된 성모 영보와 성자의 수난 때 “예”라고 대답한 이래로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 다룬 것이다.

하느님과 교회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을 모아 이것을 성모속의 구절구절에 따라 부류하였다.

· 동정 마리아  
카세트 3,500원, CD 8,000원  
바오로딸

독일 음악사에서 뛰어난 음악가인 Hassler가 베네치아 악파의 풍을 따라 표현한 곡들을 서울 가톨릭 합창단이 노래한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미사곡은 원래 이에 앞서 작곡된 DIXIT MARIA “동정 마리아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어서 흔히 모방 미사라고 불리운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 지해가 필요합니다.

■ 선풍기 사용

- 선풍기를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놓는다.
- 가능하면 약풍(미풍)을 이용하며 강, 중 약을 바꿀때마다 약 10와트의 전기가 더 쓰이므로, 자주 조절하지 않도록 한다.
- 잠들었을 때 계속 돌리면 산소가 부족하여 위험하므로 잠잘 때에는 타이머를 써서 저절로 꺼지게 하는 것이 좋다.
- 비오는 여름날 공기중의 습도가 80% 이상이 되면 선풍기를 돌려도 땀이 증발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역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삼일 렌트카

<교우분 특별우대>  
이 춘 근  
한 미 자(글라라)  
덕진공원 입구 옆, 덕진주유소 내  
☎ 86-1001  
87-1001

코리아나 부페

특급호텔식 정통 부페  
20석~400석(대·소 연회석 완비)  
회갑연, 칠순잔치, 단체모임 특별우대  
노 상 용(베드로)  
진주역 광장 앞(주차 150대)  
예약문의 ☎ 241-4800~1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 순 이(가티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

동양매직 요리교실

\* 제과제빵, 오븐요리  
\* 모든 요리는 주1회 강습  
(선착순 25명)  
홍 가 형(일루미나)  
백제로 동원빌딩 2층  
☎ 71-0414~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1.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  
· 14일(수) - 어머니미사 전 10시30분, 후 7시30분 특전미사  
· 15일(목) - 전 5시30분, 전 10시30분, 후 7시30분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당 있음.
2. 모임 : ①장우회,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 - 14일 어머니미사 후  
③자비의 모후Cu. - 18일 공식미사 후
3. 금주 전례 : 새벽 - 중노 3구역, 저녁 - 중노 4구역  
공식 안내 - 대건회, 해설 - 이수원  
독서 - ①서남석 ②유제간  
신자들의 기도 - 송석창, 윤은희  
봉헌 - 윤석연 부부
4. 차주 전례 : 새벽 - 남노구역, 저녁 - 동진구역  
공식 안내 - M.E. 해설 - 노광용,  
독서 - ①노관석 ②강희자  
신자들의 기도 - 손만술, 신순이  
봉헌 - 박태복 부부
5. 금주 청소 : 인후 9, 10반
6. 차주 청소 : 인후 11반, 동진 1반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1.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목) 전 6시, 전 10시  
\* 전신자본은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당 실시
2. 금주 모임 : ①프란치스코삼회 - 오늘 후 2시, 강당  
②성심회 - 14일(수) 전 10시 30분, 회합실
3. 차주 모임 : 성모회 - 18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4. 청소 안내 : ①금주 - 사랑의 썬Pr.  
②차주 - 상아담Pr.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상 기

1. 성모승천 대축일 고백성사 : 13일~14일, 전 10시~12시,  
후 8~10시
2.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목) 전 6시, 전 10시30분,  
후 7시 30분 \* 학생미사 없음.
3.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당 : 15일(목)
4. 성모회 : 15일(목) 전 10시
5. M.E.주말 : 16일~18일, 천호 피정의 집  
이준철(니콜라오)부부, 박노만(안드레아)부부
6. 금주 전례 : 해설 - 김순영, 독서 - 유종만 부부  
봉헌 - 조종업 가족
7. 성모승천대축일 전례 : 해설 - 오교성, 독서 - 박상기 부부  
봉헌 - 김응식 가족
8. 차주 전례 : 해설 - 형인순, 독서 - 신일관 부부  
봉헌 - 장홍덕 가족
9. 성당 청소 : 17일(토) 구세주의 모친Pr., 바다의 별Pr.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1. 금주 모임 : ①자교회 - 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 - 후 2시  
③사목회 - 후 8시
2. 주간 모임 : ①사라회 - 13일 전 11시  
②나자렛회 - 13일 전 11시  
③예루살렘회 - 14일 전 11시  
④사베리교회 - 14일 후 7시 30분  
⑤돈보스코회 - 14일 후 7시 30분  
⑥구역 반장 모임 - 15일 전 11시
3.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전 5시30분, 9시, 10시30분, 후 7시
4. 첫영성체 : 15일 - 공식미사 중
5. 차주 모임 : ①바비의 성모 꾸리아 - 후 2시  
②청년회 - 후 8시

\* 성지개발헌금 정성껏 봉헌합시다.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1. 금주 모임 : ①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장년회 - 17일(토) 후 8시
2. 차주 모임 : 새영세자모임, 성가대, 애령회 봉사자 모임
3. 성모 승천 대축일 행사 : ①경축미사 - 15일(목) 10시30분  
②축하미사 - 권교의 시간
4. 본당 후보 축일(여왕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 : 22일)  
행사를 겸해서 성모승천 대축일을 정성껏 보냅니다.
5. 축! 영명 애덕글라라 수녀님 : 축하합니다.
6.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당 : 15일(목) 성모승천대축일
7. 성당 청소 : 금주 - 셋별Pr.  
차주 - 평화의 모후Pr.
8. 금주 전례 : 해설 - 우경숙, 독서 - 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 - 이명수 가정
9. 차주 전례 : 해설 - 김영신, 독서 - ①박귀철 ②송정자  
봉헌 - 박현규 가정
10. 성모승천대축일 전례 : 해설 - 김미남,  
독서 - ①양주태 ②김순희  
봉헌 - 성대직 가정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원 232-5004 주임신부 이 삼 섭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삼 근

1. 성모 승천 대축일(15일) 미사 시간 안내 :  
①14일(수) - 저녁미사(특전미사)  
②15일(목) - 전 5시 30분, 전 10시 30분  
③외부 축일이므로 미사에 참석바람.  
④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 헌당 실시
2. M.E 61차 주말 : 16일~18일, 천호 피정의 집  
임봉순(토마스), 박선례(안티아)부부  
서영진(토마스), 지선례(네레사)부부
3. 오늘 모임 : 천주의 모후Cu. - 후 2시 30분
4. 주간 모임 : 제대회 - 13일 전 10시
5. 차주 모임 : ①성소후원회, 임마누엘, 한빛회, 노엘회  
- 공식미사 후  
②청년회 - 저녁미사 후
6. 성전 신축을 위한 이발 봉사 : 오늘 전 10시~후 4시,  
제1회합실
7. 성전 신축을 위한 주유권 구입에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